

죄를 사하시는 권세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287

예수 앞에 나오면

(통일 205)

보통으로



1. 예수 앞 에 나 오 면 죄 사 함 받 으 며
2. 예수 앞 에 나 와 서 은 총 을 받 으 며
3. 예수 앞 에 설 때 에 흰 옷 을 입 으 며

주 의 품 에 안 기 어 편 히 쉬 리 라
맘 에 기쁨 넘 치 어 감 사 하 리 라
밝 고 빛 난 내 집 에 길 이 살 리 라

후렴

우 리 주 만 믿 으 면 모 두 구 원 얻 으 며

영 생 복 락 면 류 관 확 실 히 받 겠 네

02 본문 읽기



마가복음 2:1-12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본문: 마가복음 2:1-12

주제: 새 언약 시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핵심질문 :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역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도입

새 언약의 약속은 두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약속이다. 하나는 '~로부터 구원'이라면 다른 하나는 '~을 위한 구원'이다.

2. 본문

포기하지 않은 믿음

중풍병자를 기어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는 것 말고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는 저 무모한 열정을 보라, 저것이 새 언약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예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는 생각, 그것이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은 빈 마음, 상한 마음이다.

죄를 사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사하는 구주시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아니면 그것이 거짓 구원이다. 예수는 의사도, 퇴마사도 아니다. 죄를 용서하는 분이다. 이는 그가 인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치유하는 메시아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그에게 안식을 준다. 새 시대의 주인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의 치유는 그의 사죄 성언이 자격 있는 자의 선언입을 입증해 주었다. 죄의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며, 관계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다. 치유는 생명력이 복원되는 새 창조의 결과이다.

3. 결론

새 언약의 주 이신 예수님께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자들은 거침없는 믿음으로 반응하였지만,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못 알아본 그들이 도리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앞으로 다가온 새 시대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

사랑과 용서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소서.